

은 일반적인 도시적 삶의 내용으로 근대 이후 도시계획상으로 나타났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의해 복구개발과 함께 도시계획, 개발, 신시가지화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주의인 뉴어바니즘이 나타났으며, 도시개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하여 인간과 환경 중심의 공간으로 도시를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는 친환경도시, 스마트성장, 압축도시 등 다양한 도시상을 나타나게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이론은 1970년대 유엔인간환경회의를 통하여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리오회의,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WCED),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I, II) 등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일반화 되어 왔다. 또한, 모든 국가와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이론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다. 전원도시 이론에서 시작되었으며, Habitat I에서 생태도시, 압축도시 이론이 나왔고, WCED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 등장 이후에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압축도시, 스마트 성장과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뉴어바니즘은 무분별한 교외로의 확산과 녹지의 감소,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단지 및 도시계획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어졌다. 이는 다양한 용도와 인구구성을 갖는 근리주구를 구성하며, 교통, 공공공간, 커뮤니티, 역사와 기후 및 생태를 고려한 복합용도개발, 전통근린개발, 대중교통중심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입지계획 원리로 구현하였다.